

박지원, 검찰 자진 출두

“억울하지만 당과 동료 의원들에 부담주기 싫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나와 ‘검찰에 전격 출석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다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며 “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긴급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한다”며 “조금 전인 오후 2시23분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청으로 출두하려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준 메시지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당과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기가 싫고,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실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출두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메시지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 19대 국회 개인 합의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을 겪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한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 동의요구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해 저의 입장과 결백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두 불가를 고수했던 박 원내대표가 이처립 태도를 바꾼 것은 악화하는 민심과 대선을 앞둔 당에 자신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은식 부장검

사)은 박 원내대표가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보냈고,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에서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송부된 체포동의안은 1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체포동의의 요구서 철회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체포동의의 요구서는 자동 폐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심 또 오심... 전국민 분노

멈춰버린 1초에 신아람 통한의 눈물



‘멈춰버린 1초’에 여자 펜싱 대표팀 신아람의 4년이 물거품이 됐다.

신아람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에페 개인 3~4위전에서 중국의 쑤위제에 11-15로 지면서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신아람은 오심으로 허무하게 결승전을 날린 뒤 끝내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관련기사 3·7·14·15면> 신아람은 준결승전에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과 치열한 접전 끝에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다. 시합전 추첨으로 어드밴티지를 얻으면서 1분의 공격을 막아내면

결승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1초를 남겨놓고 올림픽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오심이 나왔다.

신아람이 세 차례나 하이데만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경기장의 시계는 1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하이데만이 네 번째 기회를 얻었고 신아람은 통한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1초’라는 시간에 네 번이나 공격을 막아야 했던 삼식 밖의 상황에 한국 코치진은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다. 신아람은 황당한 오심 논란이 이뤄지는 동안 피스트에 1시간 넘게 앉아서 눈물을 쏟아야 했다. 그러나 국제펜싱연맹(FIE) 심판진은 하이데만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악의 오심 사례를 남겼다.

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이날 진정한 승자는 신아람이었다. 경기장

을 찾은 관중은 오랜 승강이가 벌어지는 동안 관중석을 지키며 신아람을 응원했다. 신아람이 경기 진행요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퇴장을 할 때는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메달 획득에 실패한 후 심재성 코치와 아쉬움 가득한 포옹을 하는 신아람에게 관중은 다시 한번 격려의 함성과 따뜻한 박수를 선물했다.

한편 오심으로 얼룩진 런던 올림픽에서 ‘마린보이’ 박태환은 두 번째 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중국의 쑤안과 나란히 1분44초93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공동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은 1분43초14에 레이스를 마친 야닉 아널(프랑스)에게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 펜싱 대표팀의 ‘숨은 진주’ 신아람(계룡시청)이 지난 31일 새벽(한국 시각)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에페 준결승전이 열린 사우스 아레나 피스트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억울한 패배를 당한 뒤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진

아직도 못다한 노래

2012 콘서트

9월 22일 오후 3시·7시 광주문예회관

광주일보사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남과 함께’ 등 전국민이 사랑하는 수많은 애창곡들을 불러온 가수 남진 초청 콘서트 ‘아직도 못다한 노래’를 개최합니다.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가요계에 입문한 남진은 데뷔 45주년을 기념해 2010년 열렸던 ‘남과 함께 45주년’과 세종문화회관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지난해 앙코르 공연을 통해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슴 아프게’ ‘빈잔’ ‘등지’ ‘그대여 변치마오’ ‘미워도 다시 한번’ 등 히트곡들과 남진만의 진가를 보여줄 팝송, 유행 발표곡 등 다양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세월을 잊은 파워풀한 가창력과 댄스 등 화려한 무대 매너, 환상적인 무대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에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9월22일(토) 오후 3시·7시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광주일보사, 광주 MBC
- 주관: 문커뮤니케이션
- 예매: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의: 062-220-0541, 1600-4534

12일째... 폭염특보 신기록 행진

지난 31일 광주·전남지역에 12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특보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주·나주·곡성·화순·함평에 폭염경보가, 1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관련기사 7면>

폭염특보제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주의보는 기온이 이틀간 33도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됐던 폭염특보 일수는 지난 2008년 8월 4~11일과 2010년 8월 18~25일 사이에 내려졌던 8일이다. 올해는 지난 20일 폭성·구례에 주의보가 내려진 뒤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8월 초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IOPE 스킨리프트

RETINOL AGE CORRECTOR

40 ml / 1.35 FL.OZ.

놓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클케어, 리얼이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코렉터
IOPE

Wrinkle Care Whitening Lifting Anti-Ageing Pore Care Trouble Care Sun Care Hydrating


